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광복80 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8. 20.(수) 12:00
(지 면) 2025. 8. 21.(목) 조 간

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, 쏘임 주의!

-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 최소화
- 벌집 발견 시,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거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여름을 지나며 벌의 개체 수가 늘고, 특히 8월 중순 이후로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,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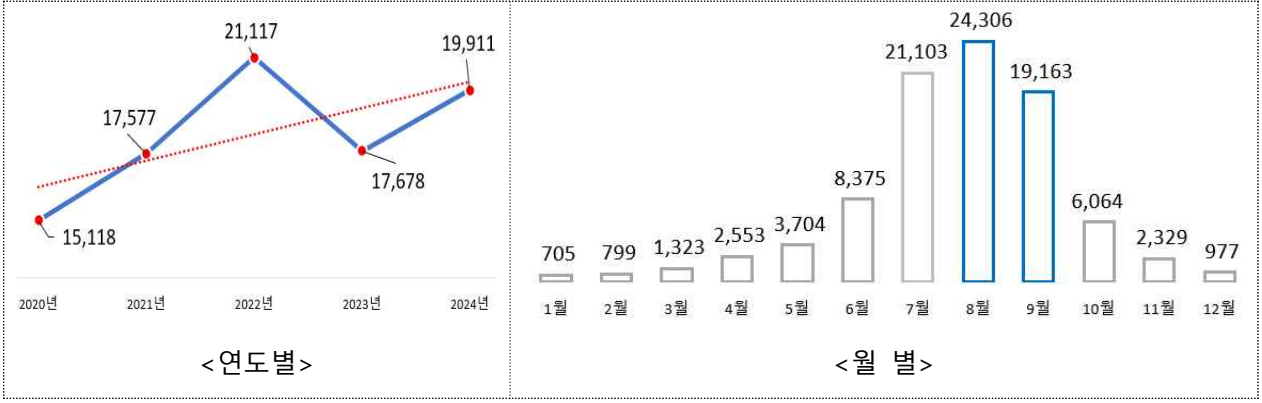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5년간(2020~2024년)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1,401명이다.

○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으며,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.

○ 8월 중순 이후는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, 연중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(8월 24,306명)했다.

※ 벌의 생태: (7월~8월) 개체 증식기, **(8월 중순 이후) 최대 활동기** (출처: 농촌진흥청)

< 최근 5년간(2020~2024년)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> 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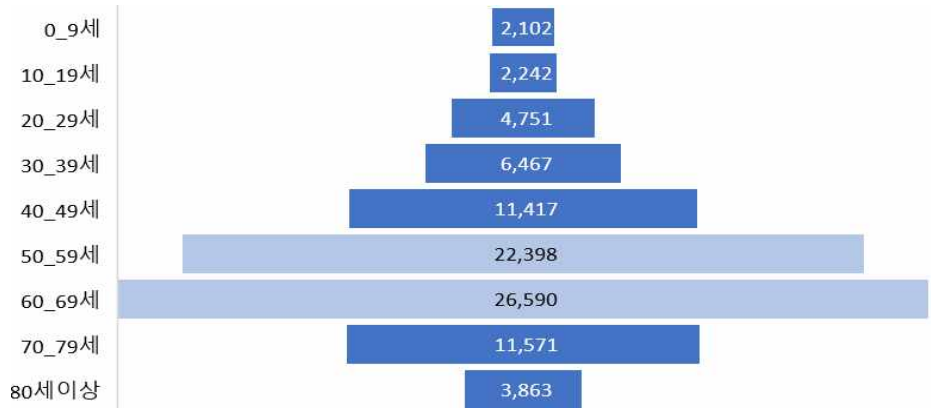
<연도별> <월 별>

[출처: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, 진료년월 기준]

○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,590명(29%)으로 가장 많았고, 50대가 22,398명(25%), 70대 11,571명(13%), 40대 11,417명(12%) 순이다.

- 특히,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,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%가 발생했다.

<최근 5년간(2020~2024년) 연령대별 벌 쏘임 환자 수> (단위: 명)



[출처: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, 진료년월 기준]

□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○ 복장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하고,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.

※ 말벌의 공격 성향 실험 결과, 머리부위와 검은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임(출처: 국립공원공단)

-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, 달콤한 음료도 벌을 유인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.

○ 야외에서 벌이 모여 있거나 땅속, 나뭇가지 등에서 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을 피한다.

-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.

○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며 벌을 자극하지 말고,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난다.

-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 많이 쏘일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한다.

- 특히, 말벌류는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8월 중순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,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는 등 벌 쏘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서기관	정인성 (044-205-450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